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에 나타난 신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 지 숙*

目 次

1. 서론
 2. 신여성과 <남녀양성 상극(男女兩性の相剋)>의 양상
 3. 신여성의 결혼이라는 제도
 4. 신여성의 가사와 육아
 5.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노방초(道草)』와의 비교
 6. 결론
-
-

1. 서론

일본의 근대화 초기 과정에서 여성교육은 '국가를 부강시키는 힘의 원천이 여성의 힘에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여성 교육은 남편에 대한 복종과 <이에(家)>에 대한 인종의 미덕이 강요되었으며 부국강병의 초석이 되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힘쓰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현모양처>가 강요되었다. 1911년에 발간된 『세이토(靑鞆)』(1911~1916)는 이러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여성의 자아신장을 꺾하는 일본 최초의 여성문예잡지이다.¹⁾ 여기에서 신여성(新しい女)들은 가

* 충남대학교 강사

부장적 가족제도의 비판,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여성의 경제적 독립 필요성 등 근대적 자아에 눈뜬 자신들의 현안을 소설의 테마로 제시한다.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1884~1945, 이하 도시코로 약칭)는 『세이토』의 창간호에 『선혈(生血)』(1911)을 발표하는 등,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1886~1971)가 중심이 된 靑鞆社(세이토사)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여성의 생활자립과 자유의식을 드높였던 여성작가이다. 메이지(明治)를 대표하는 여성작가로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를 꼽을 수 있지만 문단에서 직업작가로 활약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것은 다이쇼(大正) 시대의 도시코가 최초라고 할 수 있겠다.²⁾

종래 여성작가 다무라 도시코와 그 작품들은 <신여성(新しい女)/구여성(旧い女)>이라는 이항대립의 틀 안에서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페미니즘 문학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도시코 문학은 새로운 시점으로 재검토·재평가되고있다. 도시코의 대표작 대부분은 남편 다무라 쇼교(田村松魚, 1877~1948)와의 실제 결혼생활을 소재로 삼는다.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1915)은 도시코·쇼교 부부의 실생활이 소재가 된 대표적인 자전적 소설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소설은 <남녀양성의 상극(男女兩性の相剋)>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아내를 억압하는 남편과의 상극을 통해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의 모순을 고발한다. 본고에서는 결혼³⁾한 신여성의 삶을 제재로 삼은 『그녀의 생활』에 나타난 신여성의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남녀양성의 상극>의 양상을 여성작가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 1882~1920)의 『사랑의 쟁투(愛の争闘)』(1915)와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신여성에게 있어서의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사와 육아 문제를, 이 소설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근대문학의 거장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 《세이토》는 여성의 시대를 개척할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여성의 연대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가 강요하는 양치현모주주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성의 자기해방을 호소했던 스타일은 참신한 것으로, 새로운 지식과 생활을 찾아 갈등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일반 사회의 여성 규범에 저촉되는 《세이토》여성들의 언동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지음(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아카데미, pp.57-58.

2) 渡辺澄子編(2000), 『女性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107.

渡辺澄子編(2005), 『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 - 俊子新論』, 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至文堂, p.7.

3) 결혼(marriage)제도는 온갖 인간 사회에서 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페미니스트의 지속적인 중대한 관심사였다. 그 중에서도 그것은 성역할 분담의 기본적인 모델을 형성하므로 가부장제 사회의 축소판으로 간주되었다.

리사터틀 지음, 유혜련·호승희 옮김(1999), 『페미니즘 사전』, 문음사, p. 269참조.

1867~1916)의 『노방초(道草)』(1915)와 비교해서 1910년대 신여성들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좀더 깊게 고찰하고자 한다.⁴⁾

2. 신여성과 <남녀양성 상극(男女兩性の相剋)>의 양상

「신부의 베일 (THE BRIDAL VEIL)」

우리가 결혼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당신은 나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하얀 베일을 걷고 똑 바로 나를 바라보세요
보세요, 당신을 변민케 하는 문제를 또는 당신을 탄식케 하는 사항을
보세요. 당신을 의심케 하는 의문스런 마음을 또는 당신을 믿게 하는 신뢰를
보시다시피 우리는 단지 혼해빠진 흠 혼해빠진 이슬일 뿐
우리를 장미로 포장해 피곤해하지 말아요
아, 이런 하찮은 것을 모두 털어 버리고
내 마음을 똑 바로 보세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곳 가운데 가장 나쁜 곳을 보세요
어제 당신이 얻은 것은 오늘 당신 것이 아니고
과거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드높은 금지로 얻은 것을 몸에 걸치지 않지요
그대여, 새롭고 훌륭하게 성장해 주세요
만약, 내가 내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⁵⁾

4) 참고로 본문의 텍스트는 『彼女の生活』(『田村俊子作品集』第二卷(1988),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과 『道草』(『漱石全集(13巻)』(1957), 岩波書店)을 사용하였다. 『彼女の生活』의 번역은 줄고(『근대 일본여성문학입문』, 어문학사, 2005), 『道草』는 필자의 번역에 의한다.

5) 花嫁のベール

われら結婚せりとひとは云う またきみはわれを得たりと思う
然らば この白きベールをとりて とくとわれを見給え
見給え きみを悩ます問題を またきみを嘆かす 事柄を
見給え きみを怪しむ疑い心を またきみを信ずる信頼を
見給う如く われはただ ありふれし土 ありふれし 露なるのみ
われを薔薇に造型せんとして 疲れて悔い 給いなよ
ああ このうすものを くまなくうちふるいて
わが心をとくと見給え その輝きの最も悪しきところを見給え
昨日君が得られしものは 今日きみのものならず

위에 제시된 글은 「신부의 베일」이라는 시이다. 이 시는 「여학잡지(女學雜誌)」 6) 제 172호(1889.7.27) 잡록란(雜錄欄)에 「신부가 신랑에게 보냄(新婦、花郎に送る)」이라고 제목을 붙인 「THE BRIDAL VEIL」의 번역이다. 이 영시의 작가는 1889년 7월 1일 이와모토 요시하루(岩本善治, 1863~1942)와 결혼한 와카마쓰 시즈코(若松賤子, 1864~1896)이다. 이 시는 부부가 결혼 첫날밤에 공동일기장에 적은 것으로 시즈코는 상대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결혼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본다. 그녀는 당당히 ‘내가 내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이 새롭고 훌륭하게 성장’ 하길 바라며 그녀 또한 ‘드높은 긍지’를 지니며 남편과 함께 성장하길 염원한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아내의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한 남편이 될 경우에는 아내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도시코와 쇼교 부부의 결혼 생활은 ‘새롭고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한 경제적 무능자인 쇼교로 인해 파탄을 맞게 되었다.

여성을 둘러싼 불합리한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에 불만과 의문의 목소리를 드높였던 도시코의 삶의 궤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코는 1884년 4월 아사쿠사(淺草)의 부유한 미곡상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외동딸이었던 도시코의 어머니는 데릴사위로 맞아들인 남편을 몹시 싫어했으며 연극에 미쳐서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었다. 도시코는 이러한 어머니의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강렬한 자아를 지닌 도시코는 여성이 지녀야 할 헌신이라는 부덕을 거부하며 이를 전환 가능케 할 요소를 스스로 지니게 되었다. 그녀는 1910년 창립되었던 일본여자대학(日本女子大學)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심장병을 앓아 한학기만 다닌 채 자퇴하게 되었다. 소설가의 뜻을 품고 고우다 로향(幸田露伴, 1867~1947) 문하에 입문하였고, 그때 같은 로향의 문하생이었던 첫 남편 쇼교를 만났다. 도시코는 로향으로부터 사토 노에(佐藤露英)라는 필명을 얻어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지만 성격이 고루한 은사의 지도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배움을 단념한 그녀는 배우가 되어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배우를 진심으로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1909년 5월 쇼교는 8년 간의 미국체재를 끝내고 귀국했다. 도시코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와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쇼교의 소설은

過去はわれのものならず われは誇(こほ)り高(たか)して 借(か)たる物(もの)身(み)につけず

君(きみ)は新たに高(たか)くなり給(たま)いてよ 若(わか)しわれ明日(あした)きみを愛(あい)さんがためには

渡邊澄子(1998), 『日本近代女性文学論』, 世界思想社, pp.1-2.

6) 1885년 7월 메이지(明治)女学校 교감이었던 이와모토 요시하루(岩本善治)에 의해 창간된 여성 계몽잡지이며, 일본 최초의 부인잡지이다.

전혀 팔리지 않아 당시 남편은 빈곤한 생활을 타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녀에게 폭력과 반 강압적으로 소설을 쓰게 하였다. 아이러니하게 그 소설 『체념(あきらめ)』(1910)은 오사카 아사히(大阪朝日)신문 현상소설에 1등 없는 2등으로 당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작가 다무라 도시코가 정식으로 탄생되었다. 이 시기 도시코는 세이토사(靑鞆社)에 참가하여 기관지 『세이토』에 『선혈(生血)』(1911)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세이토』의 동인이었던 나가누마 치에코(長沼智恵子, 1886-1938)와 히라쓰카 라이초, 그리고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 1893-1966)와도 친분관계를 갖게되었다. 이후 1915년까지, 『맹세(誓言)』 『여성작가(女作者)』 『미이라의 립스틱(木乃伊の口紅)』 『호우라쿠의 형(泡烙の刑)』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남자(애인·남편)의 지배 하에 놓여진 삶을 거부한다. 나아가 강력한 자아 주장과 더불어 인습에 대한 반항을 <부부상극물(夫婦相剋物)>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양성의 상극>의 형태로 이루어낸다. 자유연애와 자기실현을 추구하려던 주인공들은 기대했던 애인과 남편으로부터 환멸을 느끼며 맹렬한 투쟁을 벌인다.⁷⁾

일반적으로 도시코 문학은 섬세하고 탐미적인 정취가 풍기는 점이 특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 고정된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근대 일본의 제도 하에서 여자의 존재는 멸시되며 열위(劣位)적 존재로 규정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제도를 초월해 당당히 남자와 대립하며 여자를 억압하는 결혼제도를 도려내 이를 여자의 문제로서 날카롭고 선명하게 선구적인 관점으로 그려내고 있다.⁸⁾

이와 같은 도시코의 <남녀양성의 상극>의 담론은 『세이토』 전기의 담론과 같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부권에 대한 반항, 현모양처교육에 대한 도전이라는 메이지(明治) 말기에서 다이쇼(大正) 초기까지의 페미니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따라서 『세이토』에 참여한 여성작가들에게서도 그와 유사한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필자는 <남녀양성의 상극> 양상의

7) 작품에 표출된 부부간의 불화는, 그대로 쇼교와 도시코 부부의 실생활이 반영되었다. 『그녀의 생활』이 발표된 1915년경 무렵부터 도시코의 창작력은 점차 퇴색되어갔고, 실생활에서는 남편과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1916년 부부는 별거에 이르게 되고, 도시코는 유야사 요시코(湯浅芳子)와 동거를 시작한다. 1917년 창작력의 쇠퇴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도시코와 쇼교는 이혼하게 되고 이후 그녀는 애인 스즈키 에쓰(鈴木悦)가 있던 캐나다로 떠나게 된다.

출고(2004), 『신여성을 만나다 - 근대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pp.338-339.

8) 출고(2005), 『근대일본여성문학입문』, 어문학사, pp.274-275참조.

대표적인 예로서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 이하 기요코로 약칭)를 들어보겠다. 『세이토』에 실린 기요코의 소설 5편 중 4편은 남편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 1873~1920, 이하 호메이로 약칭)와의 갈등을 주제로 한다.⁹⁾

기요코의 『사랑의 쟁투(愛の争闘)』(1915)에서도 <부부상극물(夫婦相剋物)>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양성의 상극>이 주된 테마이다. 소설 『탐닉(耽溺)』으로 알려진 자연주의 작가 호메이와 기요코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호메이는 기요코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기요코는 참된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거는 해도 육체관계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육체가 이길까 영혼이 이길까(肉が勝つか霊が勝つか)’라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스스로 실천한다. 이윽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에 이르게 되나 장남이 태어난 후 호메이는 세이토 사원(靑鞆社員)인 호하라 후사에(蒲原房枝)와의 애정행각으로 집을 나간다. 기요코는 남편에게 동거 요구소송을 요구했고 호메이는 역으로 이혼 승낙 청구 소송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기요코가 승소하게 되었지만 이 재판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다.

자신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두 사람은 각각의 입장에서 저서를 발표하게 된다. 호메이는 새 애인을 얻어 새로운 생활에 복귀하기 위해 『남녀의 정조문제(男女と貞操の問題)』를 썼고 이에 대해 기요코는 『사랑의 쟁투』에서 두 사람의 만남부터 애증의 과정까지를 발표한다. 기요코는 두 사람의 부조화와 고독 그리고 황량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열적으로 서술한다. ‘진정한 결혼생활은 육체의 대상이 아닌 따뜻한 애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충만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 기요코의 바람은 호메이에게 거절당하고 만다. 기요코는 『사랑의 쟁투』의 서문에서 “자신의 모든 면을 던져 나의 유치한 경솔한 결점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 대중의 비판에 맡겨두는 것은 금후 내 삶을 분발시키는 토대”¹⁰⁾라며 자신의 고백을 정당화한다.

도시코 소설의 여주인공 역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할 남성이 점차로 여성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는 관계구조를 단계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기요코는 도시코와 동일하게 개인적 영역인 부부상극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9) 黒沢亜里子(1995),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両性の相剋》問題—田村俊子の「生血」に就いて」, 脇田晴子編, 『ジェンダーの日本史 下—主体表現 仕事生活—』, 東京大学出版会, p.271.)

10) 岩野清子(1985), 『愛の争闘』, 不二出版 p.14.

것이다. 끝없는 자기 성장 욕구를 지닌 그녀들은 자신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직접적인 가해자가 애인·남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해방의식이 분출된 <남녀양성의 상극>의 소설들은 허위를 싫어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자기의식을 통해 스스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낡은 자신을 해체해 새로운 자신을 구축하려는 1910년대 신여성의 자기정체성 찾기의 하나의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3. 신여성의 결혼이라는 제도

저명한 여성 페미니즘 평론가인 고마샤쿠 기미(駒尺喜美)는 “지금까지의 문학사는 일반적으로 여성작가를 경시하면서 다루어왔다. 하지만 다무라도시코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주장하고,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근대의 자아에 각성했을 때 이에(家)와 사회에 대립하며 고뇌했다. 근대문학에서 남성들의 저항과 고뇌가 그려졌을 때 그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여성의 자아의 고뇌는 전혀 평가받지 못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국가권력에 대한 고충은 나름대로 평가되었지만 그 대립 대상이 아버지나 남편, 즉 남권(男權)인 경우에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¹¹⁾라며 지금까지 도시코가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배제되어온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남성작가들의 작품이었으며 그들이 그린 여성상은 대부분 제도에 순응하는 여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여성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과 젠더의 시점에서 문학 작품의 재평가 작업이 활발해지자 도시코는 가장 활발히 논해지는 작가로서 주목받고 있다.

도시코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그녀의 생활』은 결혼제도에 의한 성차를 파헤친 소설로 평론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 결혼이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버린 오늘날, 1915년에 쓰여진 도시코의 『그녀의 생활』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가사와 육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¹²⁾ 우선 『그녀의 생활』의 선행 연

11) 駒尺喜美(1988), 『田村俊子作品集』月報, オリジナル出版センター, p. 2.

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녀의 생활』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은 세토우치 하루미(瀬戸内春美)¹³⁾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세토우치는 ‘주장과 설명이 지나치게 많고 장황하며, 작품의 완성도로 볼 때 도저히 도시코의 작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그녀의 생활』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 비평의 가능성 - 일본근대문학을 다시 읽는다(フェミニズム批評の可能性 - 日本近代文学を読み直す)」이라는 좌담회¹⁴⁾에서, 하세가와 게이(長谷川啓)는 『그녀의 생활』을 ‘『세이토』시대가 낳은 여성해방문학의 최고봉 중의 하나’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와타나베 스미코(渡辺澄子)는 『그녀의 생활』을 선구적인 페미니즘 소설로 평가하면서 이 작품이 일본문학사에서 배제되어온 이유를 지적한다. 남성작가인 치카마쓰 슈고(近松秋江, 1876~1944)의 『의혹(疑惑)』과 도쿠다 슈세(徳田秋声, 1871~1943)의 『난폭한 사람(あらくれ)』 등 동시대 문학 중에서 『그녀의 생활』의 위상을 분석하며, 『그녀의 생활』에서 법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절실한 여성문제¹⁵⁾가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위의 하세가와 와타나베의 지적처럼 최근 일본 여성문학 평론가들 사이에 『그녀의 생활』은 본격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룬 선구적인 페미니즘 소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근대 일본의 여성해방문학의 선구적인 작품이며 근대일본문학 속에서 이 정도로 논리적으로 명확히 결혼제도에 있어서의 성차의 구조를 제대로 그린 작품은 달리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¹⁶⁾

『그녀의 생활』의 작품론을 살펴보면, 스즈키 마사가즈(鈴木正和)는 작품 중의 「자연(自然)」과 「사랑」이라는 단어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주인공

12) 2005년 6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8%로 여성 중 10명 중 5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70년 39.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지만 남편이 가사를 돕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0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32분으로 맞벌이 가구 남성의 31분에 비해 1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 瀬戸内晴美(1961), 『田村俊子』, 文芸春秋新社.

14) 新日本文学会, 『新日本文学』.(1987년 4월호)

15) 渡辺澄子(2000), 「田村俊子の『彼女の生活』の位相」, 『人文科学』, 大東文化大学 人文科学研究所.

16) 長谷川啓 「解題」(1988), 『田村俊子作品集2』,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p.446-450.

마사코는 「자연(自然)」을 중시하였으므로 결혼생활의 고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¹⁷⁾ 이와 더불어 야마자키 마키코(山崎真紀子)는 『그녀의 생활』에서 총명한 마사코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힌 것을 소설 속에서 장치된 함정이라고 분석했다.¹⁸⁾

『그녀의 생활』에서 여주인공 마사코는 애인인 닛타를 사랑하면서도 그의 프로포즈를 주저한다. 이러한 마사코의 사고는 도시코의 결혼관이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히라쓰카 라이초는 여성의 자아를 구속하는 법률혼을 거부하며 1914년 오쿠무라 히로시(奥村博史)와 사실혼을 선언했다.¹⁹⁾ 도시코와 쇼코는 이들 보다 5년 앞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도시코의 소설에서는 봉건적인 결혼제도에 반대해 법률에 의하지 않는 자유로운 결혼을 꿈꾸는 여성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녀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부장적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법률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도시코의 『여성작가(女作者)』(1913)에서의 ‘별거 결혼’이다.

그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별거 결혼을 한다며 돌아왔습니다. 무척 사랑하는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떨어져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저는 저입니다. 저는 저이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지요. 나의 사랑이지요. 나의 사랑이지요. 나의 사랑이지요.”²⁰⁾

이와 같이 ‘나의 사랑’을 주장하는 주인공 여성작가는 자신의 친구의 에피소드에서 ‘별거결혼’을 언급한다. 여성작가는 ‘평생 떨어져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처럼, 결혼 후에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개체적 자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혼관은 『그녀의 생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주인공 마사코(優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현대의 총명한 젊은 여성들이 흔히 지니고 있는 의심스러운 결혼’에 대해 불안감을 지

17) 鈴木正和(1998), 「田村俊子『彼女の生活』論 一語)手のとらえたもの-」, 『日本文学論文集』第二十二号.

18) 山崎真紀子(2005), 『田村俊子の世界 作品と言説空間の変容』, 彩流社, p.224.

19) 라이초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을 현모양처를 전제로 한 당시의 법률제도에 의문을 품었다. (平塚らいてう(1914), 「世の婦人達に」, 『青鞜』참조)

20) 『女作者』(『田村俊子作品集』第一巻, オリジナル出版センター, 1987)

니고 있었다. 남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상실될 결혼생활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나 소중한 존재로 지켜내고 싶어했다. 이하 문제의 부분을 발췌해 보겠다.

그 점에서는 마사코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굴욕만이 보이는 것이었다. 모든 여자의 허리춤에는 두터운 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그녀들은 마치 자신이 라는 존재를 모두 상실한 망령과 같은 창백한 표정 만을 짓고 있었다.(1)

마사코는 이러한 여자의 생활을 떠올릴 때면 진저리가 쳐졌다.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한 여자가 살고 있는 생활의 길을 좇기 싫었다. '내 자신'을 어디까지나 '내 자신'으로서 한 평생 살려 두고 싶었다. 남자의 이기심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듯한 결혼생활은 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고귀한 존재로서 홀로 살아갈 것이다. 사랑이라는 비겁한 구실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텃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마사코는 결심하고 있었다. (1)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내 사랑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고 싶어요.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사랑의 의무감 따위는 갖지 않았으면 해요. 결혼하지 말고 영원히 연애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1)

인용이 좀 길지만, 닷타의 프로포즈에 대해 마사코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에 벗어난 애인' 사이로 지낼 것을 제안한다. '몸을 연인에게 허락하는 것은 영원한 자유이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자의 손에 의해 달아버리는 것'이고,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조르는 건 내 몸에 평생동안 사슬을 채워주겠다는 것'이라는 경계심을 지니며, '사랑이라는 비겁한 구실'을 위한 결혼을 거부하였다. 여기에는 자립을 지향하는 아내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내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부장제를 지키려는 남편과 피할 수 없는 갈등이 파생된다는 것을 마사코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사코의 사고는 실존주의 페미니스트인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사이에 진지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긴했지만, 그녀는 결혼제도가 부부의 관계들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²¹⁾ 결혼은 마사

21) 로즈마리 퍼트넘 통 지음, 이소영 옮김(2000), 『페미니즘 사상 - 종합적 접근』, 한신

코에게 만족감, 평온함, 안정감을 제공하였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다. 마사코는 자유를 상실한 멧가로 사랑과 행복을 얻게 되었으며, 점차 더 적은 것을 위해서 정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4. 신여성의 가사와 육아

철학자인 닷타와 소설가인 마사코는 자유왕래가 금지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일에 전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게 된다. 버지니아 울프(Viginia Woolf, 1882~1941)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1929)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제목처럼 여성은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하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연간 오백 파운드’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이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으레 짐작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생각하고 남자들처럼 행동하고 남자들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적인 독립을 지향한 ‘자기만의 방’을 지닌 마사코는 남편에게 부양되는 삶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부하려 애쓰지만 즉각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가사이었다.²²⁾ 가사는 대표적인 유형의 가부장제 산물인데 마사코는 가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가사노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인식하기에 이른다.²³⁾ 즉 이 소설에서 가사노동은 적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묘사되고 있다. 마사코의 가사노동 담론에

문화사, p.351참조.

22) 신여성에 있어서의 가사에 대한 압박감은 나가누나 치에코(長沼智恵子)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나가누마 치에코는 『세이토』의 표지그림을 그린 작가이다. 치에코와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는 글자대로 신남성과 신여성 커플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치에코도 고타로도 아무런 의심 없이 가사는 전적으로 아내의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치에코는 모든 가사를 떠맡게 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예술과 사색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그녀 스스로가 예술에 대한 욕구와 창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미쳐버리고 만다

岩淵宏子・北田幸恵編(2005), 『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学史【近現代編】』, ミネルバ書房, p.383

23) 가사노동(domestic labor)이란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 노동력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뜻한다.

메기 힘 지음, 심정순·염경국 옮김(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p.24.

대한 태도는 숨겨진 여성의식의 내면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사로 인해 하녀를 고용해 보지만 일일이 가사를 지시하기에도 지쳐버려 닛타와 협력해 가사를 하기로 했다.

닛타도 마사코처럼 가사에 질려버렸다. 닛타는 애써 여자의 잡무를 도와주려고 했다. 자신의 본래의 업무 시간이 얼마만큼 무의미한 잡다한 용무로 탕진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 닛타도 자신의 서재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닛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집안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다. 특히 자신에게는 두 사람의 생활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닛타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날마다의 생활이, 닛타 자신에게 사회에 대한 새로운 남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었다.(1)

한 집안의 가장인 닛타는 집안의 가계의 의무와 책임을 담당했기에 경제적 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가사를 경시하고야 만다. 경제적 의무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던 마사코였지만 자신의 경제력으로만은 집안을 끌어갈 수 없었기에 그녀는 남편의 이런 생각을 비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마사코는 ‘남자의 일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지닌 ‘현명한’ 아내였기에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애당초 아내가 ‘여자로 살아가려는 길을 해방시켜주겠다고 맹세한’ 닛타의 눈에도 그렇게 ‘활달하게’ 살아온 그녀의 생기 없고 창백한 얼굴이 가련히 보일 뿐이었다.

“여자가 한편으로 가정을 꾸려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자와 같은 보조로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분명히 남자보다 두 배의 일을 해내는 것이다. 힘의 차이는 어찌됐든, 그 양적 면에서는 여자 쪽이 남자보다 우월하다.”(4)

마사코는 남편에 대한 ‘사랑의 신앙’으로 필사적인 궁리 끝에 가사를 숨씨 좋게 매듭짓고 서재에 들어가 자신의 일에 몰두할 시간을 짜내게 되어 원하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마사코는 가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예술활동을 성공리에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여자가 가사를 담당하면서 사회에서 남자와 대등한 일을 하려할 때는, 남자보다 두 배의 힘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닐까하는 여자의 ‘궁지’를 자각해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이때 마사코에게 새

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그것은 임신이었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게 끝장났어.”

라고, 마사코는 생각했다. 슬픈 절망—마사코는 자신들 사이에서 아이 따위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보다도, 그 후 자신의 생활에 또 새로운 책임이 늘어난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선량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5)

마사코는 ‘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며 ‘여자, 그 자연의 운명을 저주’한다. 임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불안을 지니고 있었던 마사코의 임신기간은 몹시도 황폐하게 그려진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자신의 신체를 파괴해버리고 싶은 초조감’에 휩싸인다. 그녀는 결혼 후 지금까지 가사로 인해 자신의 예술적 삶이 방해받아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방해꾼이 나타났음을 직시한 것이다. 임신 방책으로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 양자로 보내기로 남편과 상의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손을 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안고 서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시종 마사코의 일을 방해했다.

마사코는 자신의 창작욕에 흥분해 있었을 때, 그 사랑스러운 방해물을 미워하지도 저주할 수도 없게 되자, 그저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무언지 알 수 없는 초조한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 내리자, 그 후에는 지쳐서 녹초가 되었다. 그녀는 정신 없이 갓난아기의 그 작은 생명을 부둥켜 앉았다. 마사코는 자신의 창작욕에 흥분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방해꾼을 미워할 수도 저주할 수도 없게 되자, 다만 갓난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알 수 없는 초조한 눈물의 그녀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6)

육아를 전담하는 일은 아내의 몫이고 그저 남편은 바깥일만 하면 된다. 아무리 여성이 능력이 있고 남성이 무능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이치이고 당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성(motherhood)은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아름다움은 곧 어머니 역할(mothering)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는 것으로 미화되어 왔다. 모성에 대한 미화나 신비화는 여성의 위치를 가정으로 한정하고 여성의 임무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한다.²⁴⁾ 마사코의 모성의 거부는 가정의 틀에 매여있는 어머니를 거부하는 데서 기인하며 가정내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인주의적인 바램인 것이다.

마사코가 가사와 육아와 자신의 창작 일을 빈틈없이 해내려고 했을 때 남편은 그저 방관만 한다. 남편은 이 모든 가사와 육아가 결코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마사코는 시행착오의 고생을 거듭한 끝에 긍정적으로 발상을 바꾸어간다. 빈틈없는 가사의 처리와 완벽한 육아를 바라지 말 것을 다짐한 마사코는 아이를 안으면서 사색하고 부엌일을 하면서 궁리하며 세탁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태평히 책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자신의 생활이 사랑이었다. 자신이 살아가는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터득한 사랑이 얼마나 커다랗고 무한한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 생각한 사랑의 신앙과는 다르게, 지금은 자기 자신이 사랑의 여신이라도 된 것처럼 해석하였다.(6)

마사코는 ‘슬퍼해야 할’ 여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변해 가는’ ‘사랑의 생활’을 외치게 된다. 결국 신여성과 남성의 커플 일지라도 역시 성 역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사코는 사랑의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육아에서부터 가사 일체를 모두 떠맡게 되는 것이다.

5.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노방초(道草)』와의 비교

필자는 『그녀의 생활』(1915. 7)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나쓰메 소세키의 『노방초(道草)』²⁵⁾(1915. 6 ~9)를 주목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녀

24) 이정옥(2000),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pp.118-119 참조)

25) 『道草』는 나쓰메 소세키가 1915년 도쿄(東京)·오사카(大阪) 「아사히(朝日)신문」에 연재한 작품으로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물을 소재로 한 자전적인 요소가 짙은 장편소설

의 생활』이 여성작가가 그린 현모양처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여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노방초』는 남성작가가 남자(남편)인 자신이 여자(아내)를 억압하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두 소설은 여성작가와 남성작가가 바라본 여자의 문제 중 특히 <결혼제도의 비극> 26)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소세키의 작품 『행인(行人)』(1912.12 -1913.11)의 오나오(お直)는 “나는 마치 부모님이 화분에 심어주신 꽃과 같은 존재예요. 한번 심어지면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옮겨주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말라서 죽을 때까지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걸요”라며 탄식한다. 『행인』의 발표 전년인 1911년에 『세이토』가 간행되었고, 소세키는 분명히 신여성(지금의 여성(今の女))을 염두하며 오나오를 그렸다.²⁷⁾

『그녀의 생활』과 『노방초』의 부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 그 불화의 이유를 우선 남자 주인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노방초』의 화자는 결혼생활에 대해 “모든 의미에서 보았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대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71)라고 하여 남자 주인공에 대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를 실현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아내를 처음부터 가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同)라며 자기 중심적인 겐조(健三)를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그녀의 생활』의 닛타(新田)는 이름 그대로 새로운 남자였다. 그는 결혼을 주저하는 마사코에게 “나는 지금보다 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 주겠소. 당신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과 같소. 나는

이다. 필자는 『道草』의 선행논문 중, 와타나베 스미코(渡辺澄子)와 고마샤쿠 기미(駒尺喜美)의 논문에 주목하고 싶다. 와타나베는 지금까지 정설로 여겨진 겐조와 오스미 부부의 불화설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부장제의 희생자인 오스미의 입장을 이해해 가는 겐조를 ‘인간평등의 시점을 획득한 1915년 시점의 소세키의 인식이 투영되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고마샤쿠 또한 ‘결혼제도의 비극을 남성의 시선으로 이끌어낸 ‘페미니즘 소설’로 높게 평가한다.

渡辺澄子(1996), 『女々しい漱石、雄々しい鷗外』, 世界思想社

駒尺喜美(1988), 『漱石という人』, 思想の科学社

26) 『道草』 소설의 주요 축은 겐조(健三)와 오스미(お住) 부부이다.

27) 三好行雄編(1990), 『夏目漱石事典』 別冊國文學 NO.39, 學燈社, P.164.

『行人』의 오나오(お直)에 앞서, 소세키는 모리타 소헤이(森田平)와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정사 미수사건인 <煤煙事件>(1908. 3. 21)이 일어나자, 그 영향으로 『三四郎』의 여주인공인 미네코(美禰子)를 그렸다고 한다. 소세키는 신여성의 도래를 의식하고 미네코에게 그 시대를 반영시켰다.

당신을 단지 가정의 안주인으로서만 맞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오”(1)라는 이해심 많은 말로 마사코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닛타는 마사코가 가사와 육아로 인해 고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주는 아내’에게 행복감을 느끼는 신남성 지식인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한다.

『노방초』의 여주인공인 오스미(お住)는 비교적 자유로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새로운 짐’을 지니며 가부장 제도의 공허한 논리로 가장된 남편의 기만을 야성적으로 깨부수었다.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면 전 그렇게는 못해요. 존경을 받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존경받을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죠. 남편이라는 이름은 관계없다고요”(71)라며 남편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아내였다. “난요, 어떤 남편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잘 해주기만 한다면.” “도둑이면 어떻게 사기꾼이면 어때요. 자기 부인을 소중하게 여겨주면 되죠.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남자라도 부인에게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77)라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다음은 『그녀의 생활』의 마사코와 『노방초』의 오스미가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장면이다.

(1) 그녀의 창작의 펜은 조금도 진척되지 않았다. 서재에 있으면, 멍하니 있게 되는 날이 계속되었다. 마사코는 끝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홀로 슬퍼했다. 마사코는 점점 히스테리 환자 같은 몸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가끔 심하게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몸 전체에 활기가 넘치는 닛타를 보면 마사코는 샘이 났다.

마사코는 남자에게 대들거나 남자에게 반항하는 일이 잦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로 남자에게 다짜고짜 싸움을 걸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순간만은 남편을 굴복시킨 듯한 긍지를 느꼈다. 그녀가 이러한 대책 없는 감정을 즐기게 된 것에 대하여, 닛타는 이제까지 숨겨 온 여자의 고약한 성질이 이 무렵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다고 오해하게 되었다.(4)

(2) “당신. 자꾸 그러면 나 또 히스테리를 일으킬 거예요.” (중략)

어느 날 밤 겐조는 잠에서 깨어, 커다란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서양에서 가져온 면도날이 들려 있었다. 칼집에 든 날을 세우지 않고 검은 손잡이 부분만 쥐고 있어 칼날의 번들거림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섬뜩했다. (54)

(1)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충명한’ 마사코는 남편의 심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선량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아를 상실한 채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만다. ‘남자의 이기심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듯한 결혼생활’은 결국 마사코를 ‘대책 없는 감정’을 지닌 ‘고약한 성질’의 여자로 변질시킨다. 남편의 억압에 불만이 고조된 (2)의 오스미도 히스테리로 남편을 공격한다.²⁸⁾ 『노방초』에서의 화자는 오스미의 히스테리 증세를 ‘자연의 완화제’와 ‘두 사람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완화제 역할’(78)로 설명하고 있듯이 겐조는 자신의 탓으로 아내가 발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30장 참조) 이에 대해, 『그녀의 생활』에서 마사코는 스스로 ‘사랑’을 외치며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해 가려한다. 이 때의 ‘사랑’이란 하세가와가 지적한대로 ‘자기암시·자기기만’이 되어 결국 사랑에 의해 회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를 실현하고 싶어하’던 마사코는 오스미와는 달리 결혼 전부터 ‘남자의 이기심에 자신의 영혼’이 상실될 ‘두터운 사슬’에 묶여질 결혼의 실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존의 제도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려가고 만다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5. 결론

기존의 문학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배제되어 온 여성작가의 작품이 실제로는 그 시대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심장한 코드로 해석될 수 있다. 다무라 도시코는 남성중심의 제도와 관념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일본의 근대 초기에 여성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억압을 『그녀의 생활』에서 묘파해 내었다. 현모양처가 곧 여성의 본질적인 삶이요, 남편과 자식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요당하던 시기에, 도시코의 여주인공들은 가부장제의 틀을 제시한 눈앞의 애인·남편과 격렬한 투쟁을 벌인다. 즉 도시코의 문학은 <남녀양성의 상극>이라는 주제로 표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와노 기요코의 『사랑의 쟁

28) 이시하라 치야키(石原千秋)는 『道草』를 신경쇠약에 걸린 남편과 히스테리를 앓는 아내 이야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오스미의 히스테리가 부부관계의 상징이 되고 또 겐조와 오스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설명한다.

石原千秋(1997), 『反転する漱石』, 青土社, p.347.

투』(1915)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녀의 생활』에 나타난 신여성의 정체성을 고찰하였다. 여 주인공 마사코는 신여성이 주창하는 자유연애를 감행해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그녀 역시 가부장제도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주체적 삶에 대한 자의식을 지녔던 신여성 마사코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생활의 장에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만다. 신남성 닛타는 가부장적 무의식의 양상을 드러내고 마는데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가사와 육아라는 현실적 책임을 마사코에게 떠넘기고 만다. 닛타의 이러한 모습은 마사코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명제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비협조자로 등장한다. 즉 닛타는 자아를 추구하는 한 개체로서의 아내가 아니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암암리에 강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마사코는 자기희생의 미덕을 발휘해 아기를 양육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을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삶도 병행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 결혼 전 마사코의 확고한 개체적 자아를 확립하고자 했던 신여성이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주체적 자신의 자아가 분열되고 소외되는 현실을 초래하고 만다. 마사코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타협하고 만다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녀의 생활』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소세키의 『노방초』에서는 결혼제도에 억압된 아내의 삶과 남편의 이기심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코의 『그녀의 생활』은 여성의 결혼과 자립이라는 면에서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 1899~1951)의 『노부코(伸子)』(1924~1926)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녀의 생활』을 유리코의 『노부코』와도 비교 고찰해 보고싶다. 29)

29) 『노부코』는 쇼와(昭和) 여성문학의 기점으로 일컬어지는데, 연애, 결혼, 이혼, 자립이라는 길을 밟아가는 노부코는 실로 ‘새로운’ 여성이며, 그녀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지배되는 일이 없었다. 『노부코』의 문제를 주체 면에서 보면 이 작품에 대한 『세이토』의 영향을 지적해야한다. 노부코는 말하자면 『세이토』의 세례를 받은 인간이며 『세이토』의 부산물이기도 했다.

최연(2005),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한일비교문학연구회편, 『비교학자가 본 일본, 일본인』, 현대문학, p.128 참조)

【参考文献】

- 김은희·안혜련·최은정·이지숙·안노 마사히데(2004), 『신여성을 만나다-근대 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pp.338-339.
- 로즈마리 퍼트남 통, 이소영 역(2000),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p.351참조.
- 리사터틀, 유혜련·호승희 역(1999), 『페미니즘 사전』, 문음사, p. 269참조.
- 메기 협, 심정순·염경국 역(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p.24.
- 이지숙·안정화(2005), 『근대일본여성문학입문』, 어문학사.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지음(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아카데미, pp.57-58.
- 한일비교문학연구회편(2005), 『비교학자가 본 일본, 일본인』, 현대문학, p.128.
-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pp.118-119.
- 岩野清子(1985), 『愛の争闘』, 不二出版, p.14.
- 石原千秋(1997), 『反転する漱石』, 青土社, p.347.
- 岩淵宏子·北田幸恵編(2005), 『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学史【近現代編】』, ミネルバ書房, p.383.
- 駒尺喜美(1988), 『漱石という人』, 思想の科学社
- 新日本文学会, 『新日本文学』.(1987年 4月号)
- 瀬戸内晴美(1961), 『田村俊子』, 文芸春秋新社
- 『漱石全集(13巻)』(1957), 岩波書店.
- 『田村俊子作品集』第三巻(1987.12~88.9),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 脇田晴子編(1995), 『ジェンダーの日本史 下 一主体と表現 仕事と生活一』, 東京大学 出版会、p.271.
- 渡邊澄子·村松定孝(1990), 『現代女性文学辞典』, 東京堂出版.
- 渡辺澄子(1996), 『女々しい漱石、雄々しい鷗外』, 世界思想社.
- 渡邊澄子(1998), 『日本近代女性文学論』, 世界思想社, pp.1-2.
- 渡辺澄子編(2000), 『女性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107.
- 渡辺澄子(2000), 「田村俊子の『彼女の生活』の位相」, 『人文科学』, 大東文化大学人文科学研究所.
- 渡辺澄子編(2005), 『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 一 俊子新論』, 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至文堂, p.7.

要 旨

大正前期の文壇で最も華マしく活躍した女性作家は田村俊子である。『女作者』『木乃伊の口紅』『炮烙の刑』など一連の代表作の後、『枸杞の実の誘惑』『母の出発』など見るべき作品を残している。俊子の代表作のほとんどは彼女自身の結婚生活を素材としている。俊子の自我が立ち向かった直接の敵は眼前の夫であって、そこには女が自己を肩幅いっぱい生きることの困難が切実に描かれている。特に、自分を猛烈に生きようとする女性の描出は『彼女の生活』でよく描かれている。

田村俊子は近代日本で最初の女性による女性のための文芸誌、という『青鞥』に創刊号から参加していた。『彼女の生活』は「男女両性の相剋」という当時の「新しい女」にとって最も切実なテーマを提起したものとして、女性を窒息させる結婚制度を取り上げ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青鞥』をめぐる一見雑多な人々の意識の中に浮かび上がってきた時代的課題としての新しい女における「男女両性の相剋」、「結婚制度」、「家事・育児」という観点から俊子の『彼女の生活』を取り上げてみる。その上、『彼女の生活』とほぼ同じ時期(大正4(1915))に書かれた夏目漱石の『道草』との比較も試みている。

「彼女の生活」と同様に<女の問題>すなわち<結婚制度の悲劇>を『道草』では取り上げている。主人公健三には漱石、妻のお住には鏡子婦人が投影されている。妻のお住は「形式的昔風な倫理観」にとらわれない「比較的自由的な雰囲気」の空気を呼吸しながら育てられたお陰で、当時として比較的旧来の制度にとらわれない、新しい点を持つ女性であった。健三とお住の主な葛藤ぶりは、次のようである。ここにはお互いに理解し難い内面を持っている夫婦が存在する。健三はお住みを、妻にあるまじき冷淡な人として「解らずや」「細うらしくない」「無愛想」「不貞寝」「ヒステリー」「しぶとい」「迷信家」などと言って非難する。一方、お住も健三を「男らしくない」「不人情」「独断家」「手前味噌」「大風呂敷」「理屈家」などと非難している。だが、健三は徐々に変わっていく。健三は徹底的な自己考察を通して、自己を客観化する。彼は次第に、知識人のプライドから解放されていくことによって、妻との連帯ができつつあるようにみえる。『道草』では妻である女性の経済的な自立という問題は見えてこない。その点、「彼女の生活」の優子のほうが、健三の云う「生きたい生き方を生きたがる」女として自立を求め、その現実に向けて戦う女性を描いているとも言えよう。

キーワード：彼女の生活、道草、新しい女、青鞥、男女両性の相剋、結婚制度、家事、育児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05-330)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874번지 대우APT 306동 803호
電 話 : 042-477-5526
e-mail : aozora26@hanmail.net

K C I